

## 청소년의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sup>†</sup>

최민경<sup>‡</sup>      김종남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본 연구는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청소년들이 대인관계 문제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탄력성의 개인내적 요인과 외적 보호요인의 중재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 5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남자 251명, 여자 314명의 총 565명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 도구로는 자기에적 성격 검사지, 내현적 자기에척도, 대인관계 문제척도,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 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에적 성향의 하위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외현적 자기에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내현적 자기에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개인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을 나누어 중재효과를 확인한 결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개인내적 특성, 외적 보호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청소년들이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인관계 문제를 보다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와 대인관계 문제에서 탄력성의 외적 보호요인이 개인내적 특성 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내현적 자기에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에 탄력성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대인관계 문제, 청소년 탄력성

<sup>†</sup>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2010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 정리한 것이며, 이 연구는 201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민경, (139-774)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3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Tel: 970-5969, E-mail: yontan1096@hanmail.net

현재 우리 사회는 공동체 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존재의 안념감과 가치감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독특한 매력과 개성을 표출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은 부모나 또래 혹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이 시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신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인 자기 표상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에적 성격 특성이 발달한 청소년들은 자신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타인에게까지 관심이 확장되기 어렵고, 외견상으로는 사교적으로 보이나 매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 역시 고유한 감정과 욕구를 가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좌절감과 분노감을 자주 느끼게 되어 부적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Kernberg, 1975; Emmons, 1984; Ronningstam & Gunderson, 1990; Carroll, 1997, Cooper, 2000). 실제로 자기에적 성향은 적대감(Hart & Joubert, 1996), 정서 극단성(Emmons, 1984), 권력욕구(Carroll, Hoeningmann-Stovall & Whitehead, 1997), 주장성(Watson, Mckinney, Hawkins & Morris, 1998)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학적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에적 성향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다(한수정, 1999). 한국청소년상담원(1999)에서 청소년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어떻

게 지각하는지에 대해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상대방이 잘난 척하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혹은 너무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것 등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기에적 성향의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와 유사하며, 결국 청소년의 자기에적 성향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여준다.

한편, 자기에적 성향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Prifitera와 Ryan(1984)의 연구에서 자기에적 성향이 높을수록 비사회적, 회피적, 복종적, 의존적인 하위척도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Watson 등(1998)의 연구에서도 자기에적 성격척도의 하위요인 중 지도력/권위주의, 우월성/거만, 자기몰입/자기동경 요인의 경우 대인관계의 곤란과 부적 상관을 보여 자기에적 성격이 대인관계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기에적 성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가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반된 논쟁이 일어난 것은 이전의 연구들이 주로 취약한 자기 개념을 보호하는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외현적 자기에에만 초점을 둔 결과일 수 있다.

자기가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서로 다른 측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연구는 Akhtar와 Thomson(1982) 이후 Wink(1991)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는 모두 거대 자기 환상과 특권의식, 자만심, 자기방종, 타인을 무시하는 특성의 공통된 측면이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면에서 그 특성이 구별된다. 먼저 외현적 자기에자는 웅대한

자기표상 및 자기과시의 경향으로 설명되며, 성공과 권력, 이상적 사랑에 대한 공상에 빠지고, 과도한 찬사를 요구한다. 또한 겉으로는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특별한 대우를 바라고, 공감하지 못하고, 거만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관심이 없다. 이것은 DSM에서 묘사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준거들과 일치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반면 내현적 자기애자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과민성과 취약성의 경향으로 설명되며, 자기 확신과 주도권이 부족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수줍어한다.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경멸이나 비판의 증거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은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역기능적이어서 안녕감, 유능감, 적응성이 부족하고 우울과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피하적인 특성 등 성인기 삶에서의 부적응과 보다 관련 있다(김미자, 2001). 이처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분명히 구별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주로 외현적 자기애만을 다루어 자기애의 전반적인 양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외현적 자기애보다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에게서 대인관계가 더 역기능적일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신체적 성장, 문화적 환경,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불안과 혼동의 이행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자기애적 성향을 ‘자기애성 성격장애’처럼 하나의 증상이나 병으로까지 간주할 수는 없다. DSM-III의 진단 준거를 토대로 자기애적 성격 척도를 개

발한 Raskin과 Hall(1981)는 자기애적 행동들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는 병리적인 자기애로 언급하였지만, 미약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성격 특질로서 자기애를 반영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Waddell(2006)은 “자기애-청소년의 장애”라는 논문에서 청소년의 자기애를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능력이나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았으며, Kohut(1971, 1977)도 자기애를 병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으로 확장하여 자기의 발달을 자기애의 변형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자기애를 병리적인 양상보다는 정상적인 성격 발달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기는 자기애 발달이 정상과 병리의 가운데 있으며 정상에서 병리적으로 취우치기 쉬운 자기애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Bleiberg & Efrain, 1994). 따라서 이 시기 청소년들의 자기애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키워가고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애적 성향의 청소년들이 보이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심리적 적응의 변인 중에서 특별히 탄력성(resilience)에 주목한 이유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적응 기제가 바로 탄력성이기 때문이다. 탄력성이란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해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위험요인들을 중재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해나가도록 돕는

과정적 능력으로 정의한다(Luthar, Cocchetti & Becker, 2000; Constantine & Benard, 2001; Revich & Schatte, 2002; Olsson et al., 2003; 이해리, 조한익, 2006에서 재인용). 여기서 개인내적 특성이란 개인의 내적·성격적 특성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거나 그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외적 보호요인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심리사회적 환경으로서 개인의 역경에 대한 반응을 향상시켜 주는 보호기제의 역할을 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이해리, 조한익, 2006).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이나 혹은 외적 보호요인 중 하나로만 보는 탄력성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개인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며 실제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탄력성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탄력적인 특성을 지닌 아동들은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Rutter, 1987; Klohnen, 1996). 또한 낙관적이며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활동력을 보여주고,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이 있으며 능숙한 자기 표현력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Klohnen, 1996), 공격에 민감하지 않으며,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마찬가지로 탄력적인 사람들은 안정적 성격과 낮은 불안, 높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 학교와 사회생활에서의 능동적인 참여,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은미, 박인전, 2002). 그러므

로 탄력성이 높은 이들은 여러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애적 성향의 청소년들의 교육과 상담에 있어서 탄력성이라는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의 영향을 밝힌 연구들이 있지만, 주로 대학생들이나(정보아, 2001; 이인숙, 2002; 강연우, 2004; 오홍석, 2007; 홍정연, 2009), 부부 쌍을 대상으로 자기애가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강은정, 2005) 등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를 밝힌 연구나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역기능의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요인에 관한 연구 역시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청소년의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탄력성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나 영향을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며(진애선, 2007; 강창실, 2008; 송혜리, 2010), 그 외에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에서 자아 탄력성의 조절효과(윤경란, 2006)와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들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이신영, 2010)에 대한 연구 등 조절효과나 중재효과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비하다. 그러나 상담이나 심리치료 장면에서 중재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자기에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이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인 안정감과 적응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현적·내현적 자기에적 성향에 따른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밝히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 가설로는 외현적 자기에적 성향과 내현적 자기에적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의 자기에적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이 중재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가설로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탄력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보다 더 적게 느낄 것이라고 가정하여 청소년의 자기에적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 5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16-18세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미 응답한 35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남학생 251명, 여학생 314명의 총 565명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 측정도구

**자기에적 성격 척도(NPI).** 이 척도는 정상인의 성격특성으로써 외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용도

로 사용되는 것으로, Raskin과 Hall(1979, 1981)이 DSM-III(1980)의 자기에성 성격장애 진단 준거에 근거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에 측정도구이다. 이 척도의 하위 요인은 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1)이 공통요인분석을 통해 40문항을 32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적 성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Raskin과 Terry(1988)는 내적합치도를 .83으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2이었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CNS).** 이 척도는 Ahktar와 Thompson(1982)의 자기에성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이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45-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요인을 도출하였는데, 각각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소심/자신감 부족,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으로 명명하였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8이었다.

**대인관계 문제 척도(KIIP-SC).** 이 척도는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ñor(1988)가 Leary의 대인관계 이론에 근거하여 대인관계문제 척도(Inventory of Problem, IIP)를 개발한 것을 Alden(1990)이 재구성하여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로 만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대인관계문제 원형 척도를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의 8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크고, 그 영역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61-.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검사의 내적합치도는 .91이었다.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 이 척도는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개인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들을 포괄한 긍정적 적응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해리와 조한익(2005)이 개발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개인내적 특성 척도 24문항과 외적 보호요인 척도 24문항으로 나뉜다. 개인내적 특성은 개인의 내적, 성격적 특성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거나 혹은 그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의미하며 지적 차원, 정서적 차원, 의지적 차원, 영성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적 보호요인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심리사회적 환경으로서 개인의 역경에 대한 반응을 향상시켜주는 보호기제의 기능을 하는 요인을 의미하며, 학교차원, 가정차원, 지역사회차원, 또래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자들이 제시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4이며, 추출된 16개 요인의 요인별 신뢰도는 .62-.97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1이었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총점을 독립변인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애적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탄력성을 중재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은 Aiken과 West(1993)의 중다회귀(multiple regression) 방법에 근거하였다. 즉, 독립변인을 X, 종속변인을 Y,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중재변인을 Z라고 했을 때, Y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회귀식에 X와 Z,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 변인인  $X \times Z$ 를 차례로 투입하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애적 성향과 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경우, 자기애와 탄력성의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고/저 집단으로 나눈 후 대인관계 문제에 대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함으로써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 결 과

### 외현적 ·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의 외현적 ·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검증하

기 위하여 외현적·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4, p<.001$ ). 즉,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5.6%였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 또한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64, p<.001$ ).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37.8%였다. 따라서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 모두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적게 느끼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현적 · 내현적 자기에와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청소년의 자기에적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외현적 자기에를 투입하였고, 그 다음으로 외현적 자기에와 탄력성, 마지막으로는 외현적 자기에와 탄력성의 상호작용 항을 3단계에 투입하였다.

표 3과 4를 보면,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외현적

표 1. 외현적 자기에의 단순회귀 분석 결과(N=565)

독립변인	대인관계 문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R <sup>2</sup>	F
	B	SE	$\beta$			
(상수)	112.56	2.12		53.10***		
외현적 자기에	-.77	.13	-.24	-.59***	.056	34.68***

\*\*\* $p<.001$

표 2. 내현적 자기에의 단순회귀 분석 결과(N=565)

독립변인	대인관계 문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R <sup>2</sup>	F
	B	SE	$\beta$			
(상수)	20.57	4.40		4.68***		
내현적 자기에	.63	.03	.64	18.48***	.378	341.58***

\*\*\* $p<.001$

자기에 성향과 탄력성 중 개인내적 특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주효과를 통제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beta=-.01, p>.05$ ). 또한 외현적 자기에 성향과 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외적 보호요인의 특성이 중재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역시 외현적 자기에 성향과 외적 보호요인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beta=.06, p>.05$ ). 따라서 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청소년들에게 탄력성이 대인관계 문제의 영향에 대한 중재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이 중재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5를 보면,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 성

향과 탄력성 중 개인내적 특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beta=.63, p<.01$ ), 개인내적 특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영향을 중재함을 알 수 있다. 이때 개인내적 특성의 중재효과는 0.9%의 증분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외적 보호요인의 특성이 중재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6을 보면,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탄력성의 중 외적 보호요인의 상호작용효과는 주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beta=.95, p<.001$ ), 외적 보호요인이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내현적

표 3. 외현적 자기에와 개인내적 특성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N=565)

모형	예측변인	대인관계 문제			
		$\beta$	$R^2$	$\Delta R^2$	F
1	외현적 자기에	.04**	.04	.05	1.11***
2	외현적 자기에	.05*	.33	.29	35.30***
	개인내적 특성	-.33***			
3	외현적 자기에	.06	.33	.00	23.49***
	개인내적 특성	-.33**			
	외현적 자기에 X 개인내적 특성	-.01			

\* $p<.05$ , \*\* $p<.01$ , \*\*\* $p<.001$

표 4. 외현적 자기에와 외적 보호요인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N=565)

모형	예측변인	대인관계 문제			
		$\beta$	$R^2$	$\Delta R^2$	F
1	외현적 자기에	.04**	.04	.05	1.10***
2	외현적 자기에	.04*	.10	.05	30.29***
	외적 보호요인	-.31***			
3	외현적 자기에	.09	.10	.00	20.17***
	외적 보호요인	-.29**			
	외현적 자기에 X 외적 보호요인	.06			

\* $p<.05$ , \*\* $p<.01$ , \*\*\* $p<.001$

자기에 성향의 영향을 중재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외적 보호요인의 중재효과는 1.9%의 증분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탄

력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내현적 자기에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 50%, 하위 50%로 구분하여 각각 고·저 집

표 5. 내현적 자기에와 개인내적 특성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N=565)

모형	예측변인	대인관계 문제			
		$\beta$	$R^2$	$\Delta R^2$	$F$
1	내현적 자기에	.61***	.38	.38	341.54***
2	내현적 자기에	.59***	.42	.04	202.27***
	개인내적 특성	-.21***			
3	내현적 자기에	.06	.43	.01	139.41***
	개인내적 특성	-.67***			
	내현적 자기에 X 개인내적 특성	.63**			

\*\* $p < .01$ , \*\*\* $p < .001$

표 6. 내현적 자기에와 외적 보호요인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N=565)

모형	예측변인	대인관계 문제			
		$\beta$	$R^2$	$\Delta R^2$	$F$
1	내현적 자기에	.61***	.38	.38	341.54***
2	내현적 자기에	.58***	.42	.04	199.17***
	외적 보호요인	-.197***			
3	내현적 자기에	-.15	.43	.02	143.37***
	외적 보호요인	-.94***			
	내현적 자기에 X 외적 보호요인	.95***			

\*\*\* $p < .001$

표 7. 내현적 자기에와 개인내적 특성의 이원변량 분석 결과(N=565)

변량원	자유도	평균자승	$F$
내현적 자기에	1	12382.36	49.76***
개인내적 특성	1	41701.76	159.84***
내현적 자기에 X 개인내적 특성	1	5159.42	19.77***

\*\*\* $p < .001$

표 8. 내현적 자기에와 외적 보호요인의 이원변량 분석 결과(N=565)

변량원	자유도	평균자승	$F$
내현적 자기에	1	10138.59	39.15***
외적 보호요인	1	44362.29	171.28***
내현적 자기에 X 외적 보호요인	1	8876.55	34.27***

\*\*\* $p < .001$

단으로 나누고, 마찬가지로 탄력성의 점수를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 50%, 하위 50%로 구분하였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개인내적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_{(1,562)}=19.77, p<.001$ ). 또한 외적 보호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F_{(1,563)}=34.27, p<.001$ ).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과 그림 2를 보면,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하여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탄력성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보였지만, 탄력성의 증가에 따라 대인관계 문제가 변화하는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고, 탄력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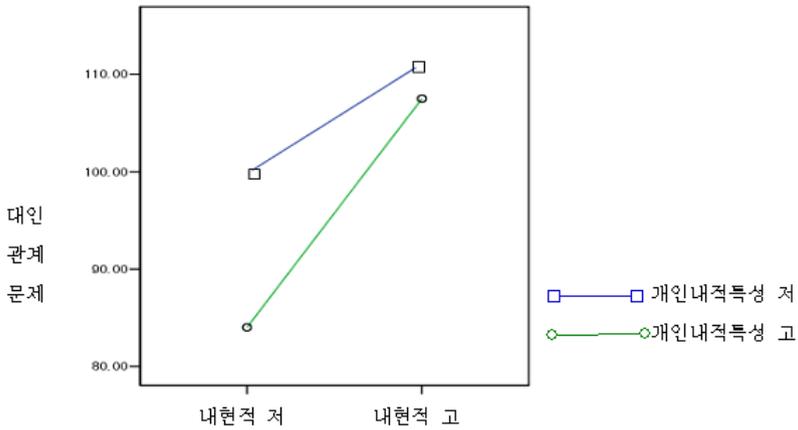


그림 1. 내현적 자기에와 개인내적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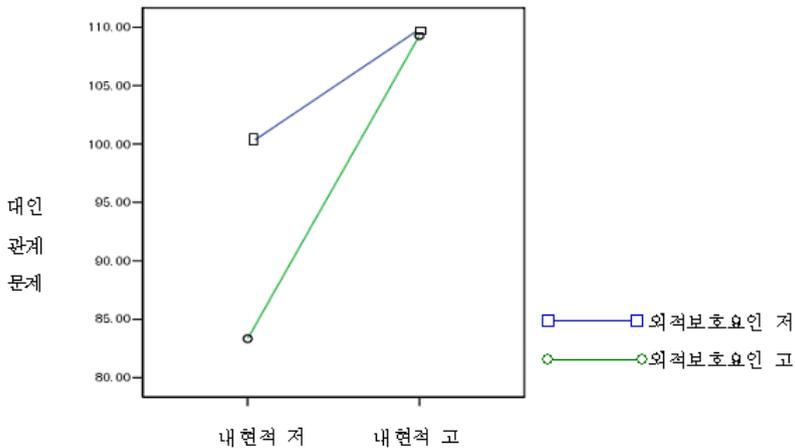


그림 2. 내현적 자기에와 외적보호효인의 상호작용 효과

낮은 경우에 가장 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낮고,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수준이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에 비해 대인관계 문제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는 감소하여 탄력성이 중재효과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 논 의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를 고찰하는 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고, 성숙한 대인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에 및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이 대인관계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자기애적 성향을 지닌 청소년에게 탄력성이 대인관계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자기애적 성향의 하위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가 정상인의 성격특성으로서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외현적 자기에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기애를 병리적으로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기애적 성향이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자기애적 성향의 소유자는 자기애가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며(Papps & O'Carroll, 1998), 공격적이고(Bushman & Baumeister, 1998), 대인관계에서도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Davidov & Morf, 2004). 한편, 이와는 반대로 자기애적 성향에 관한 또 다른 측면은 경미한 형태의 자기애적 성향에 관심을 두면서 그 적응적인 면을 보고하고 있다(Wallace & Baumeister, 2002). 자기애가 병리적이 아니라면 자기애적 성향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 특히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적응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들의 자존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Sedikides et al., 2004), 따라서 적당한 수준의 자기애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가 자존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입증되었으며(Emmons, 1984; Raskin & Terry, 1988, Kernis & Sun, 1994; Morf & Rhodewalt, 1993; Watson et al., 1992, 1996; Rose, 2002에서 재인용), 이러한 자존감은 행복과 연관이 있다(Myers & Diener, 1995). 따라서 외현적 자기에 성향은 대인관계에서 일면 긍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크게 느꼈다. 앞서 보았듯이, 외현적 자기애는 연구 목적이나 사용된 척도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는 일관되게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Wink, 1991; Rathvon & Holmstorm, 1996; Hendin & Cheek, 1997; Waston, Little, Sawrie & Biderman, 1992; Cooper, 2000; 김미자, 2001; 정남운, 2001b; 강연우, 2004; 박진숙, 2007; 박순희, 2009), 본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자들은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회피하기 때문에(정남운, 2001b),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손상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자기에적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이 중재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외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였으며, 탄력성의 더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개인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을 나누어 중재효과를 확인하였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개인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의 중재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내현적 자기에와 성향과 탄력성의 두 요인 모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느끼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탄력성도 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개인내적 특성의 중재효과를 확인한 결과, 개인내적 특성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중재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보였지만, 개인내적 특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인관계 문제가 변화하는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고 개인내적 특성이 낮은 경우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낮고 개인내적 특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내적 특성이란, 개인의 내적, 성격적 특성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거나 혹은 그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말한다(이해리, 조한익, 2005)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에 더 잘 적응한다는 구자은(2000)의 연구와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정애리(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이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대인관계 문제를 낮춘다(Garmezzy, 1983)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개인내적 특성은 인지적,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사고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적응 할 수 있게 만드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외적 보호요인의 중재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적 보호요인 역시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는데, 탄력성의 외적 보호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인관계 문제가 변화하는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고 외적

보호요인이 낮은 경우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낮고 외적 보호요인이 높은 집단의 경우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외적 보호요인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심리 사회적 환경으로서 개인이 역경에 대한 반응을 향상시켜주는 보호기제의 기능을 하는 요인을 말한다(이해리, 조한익, 2005). 따라서 이예승(2004), 하소정(2009)의 연구에서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인 보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업 수행을 잘하고, 친구 또는 교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잘 형성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Boyce Rodgers와 Rose(2002)의 연구에서 탄력적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과 가족, 동료 집단, 환경 내에서 노출되는 부정적인 요소나 스트레스를 완충시킬 있는 보호적인 힘을 가진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개인내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외적 보호요인 역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완충시키는 중재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탄력성의 외적 보호요인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개인내적 특성보다 외적 보호요인의 중재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인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아직 확립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개인내적 성숙보다는 가족, 또래, 교사 등 외부 환경의 영향

력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외적 보호요인은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안정, 보살핌의 감정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의 적응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자기에와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내현적 자기에적 성향이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청소년들 사이에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위협하는 ‘따돌림’ 현상이 점차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집단 따돌림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겪는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아가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히 내현적 자기에적 성향의 청소년들을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부적응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력성이라는 긍정적인 자원을 이용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에적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가족, 동료 집단, 환경 내에서 노출되는 부정적인 요소나 스트레스를 완충시킬 있는 탄력성이라는 새로운 보호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자기에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으며, 외현적 자기에 성향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에 대한 연구를 함께 실시하였다. 그동안 자기에의 연구는 주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자기에'라고 하면 DSM-IV의 진단 준거에 따라 자기에성 성격장애를 상기하게 되며, 자기에성 성격장애와 관련된 연구의 결과들은 자기에적 성격이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자기에가 좀 더 보편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자기에에 관한 연구(김윤주, 한성열, 1993; 김지연, 1997; 강유임, 2002, 이성희, 2006)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본 연구도 병리적인 자기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정상적인 자기에 성격으로서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에적 성격 검사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 NPI)와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 CNS)를 이용하였으며, 어떤 한정된 장애로서의 병리가 아니라 건강하고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 측면이 모두 있는 자기에적 성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에적 성향의 청소년들의 순기능적인 요인은 장려하고, 역기능적인 요인의 예방 및 개입 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 5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고 모든 지역을 표집하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전국에 걸친 대규모 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을 중학생에게도 확대하여 대인관계 문제에서 탄력성이라는 중재변인이 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해 '외현적 자기에 척도와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 NPI)와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 CNS)'만을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 척도들과 함께 '자기에성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를 함께 사용하여 병리적인 자기에적 대상자를 제외하는 작업을 하거나, 자기에성 성격장애 검사와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고유요인을 이용하여 상위 30%를 기준으로 외현적 자기에 집단과 내현적 자기에 집단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별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뚜렷하게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 집단을 구분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자기에를 보다 더 정확히 측정하고,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준거 기준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탄력성을 측정하

기 위하여 이해리와 조한익(2005)이 개발한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개발된 것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연구 논문 등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은 도구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에서의 활용을 통해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재변인으로 탄력성만을 고려하였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696-990.
- 강연우 (2004). 자기에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은정 (2005). 자기에와 내현적 대인반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현, 최해림 (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21-337.
- 이해리,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에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보아 (2000). 대학생의 자기에적 성향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수정 (1999). 자기에적 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 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ed.)*. Washington, DC: Author.
- Bleiberg., & Efrain. (1994). Normal and pathological narcissism in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8(1), 30-51.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Carroll, L., Hoenigmann-Stovall N., & Whitehead G. (1997). Self-narcissism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to narcissistic others. *Psychological Reports*, 81(2), 547-550.
- Crawford, T. N., Cohen, P., & Brook, J. S. (2001). Dramatic-erratic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Developmental pathways from early adolescence to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4), 336-350.
- Emmons, P.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Hart, P. L., & Joubert, C. E. (1996).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79, 161-162.
- Kernberg, O.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 narcissism*. New York: Arose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 Development*, 71(3), 543-562.
- Myers, D.,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apps, Benjamin P., & Ronan E. O'Carroll.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21-438.
- Paul Rose.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 - 391.
- Prifitera A., & Ryan, J. J. (1984)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in a psychiatric samp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 140-142.
-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Waddell, M. (2006). Narcissism - Adolescent disorder?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32(1), 21-34.
- Wallace, H. M., & Baumeister, R. F. (2002). The performance of narcissists rises and falls with perceived opportunity for gl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19-834.
- Watson, P. J., Mckinney, J., Hswkins, C., & Morris, R. (1998). Assertiveness and narcissism. *Psychotherapy*, 25(1), 125-131.
- Watson, P., Little, T., Sawrie, S., & Biderman, M. (1992). Measur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Complexity of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d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6, 433 - 448.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590-597.
- 원고접수일: 2010년 8월 20일  
수정논문접수일: 2010년 10월 23일  
게재결정일: 2010년 11월 4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0. Vol. 15, No. 4, 747 - 763

---

# Moderating Effect of Adolescent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Tendency and Interpersonal Problems

Min Kyung Choi      Jong Nam Kim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roblems on personal relations that adolescent with 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experience and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personal traits of resilience that reduce the difficulties on the personal relations and outer protective factor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iculties on personal relations according to the subordinate type of adolescent narcissistic personality, as the 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was higher, less difficulties on the personal relations were observed. On the other hand, as the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was higher, more problems on the personal relations were observed. Second, based o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resilience between the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that effects on the problems on the personal relations, to verify more aspects of the resilience by dividing into a subordinate factor of the resilience, personal traits, and outer protective factors. Th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in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personal traits, and outer protective factors were observed. In addition, since outer protective factors were verified to have more influences than personal traits of the resilience in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at attempted to examine adaptive factors of the resilience for adolescent was achieved.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provided practical suggesting points rather than solving the problems on the personal relations that adolescent experienced in educational situations or counseling situations.

*Keywords: overt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problem, adolescent resilience*